

4.30(수) 조간부터 사용해 주십시오



▶ 2008. 4. 29(화) 배포
▶ 총 23쪽 (사진없음)

보도자료

▶ 청년고용대책과 과장 문기섭
▶ 청년고용대책과 서기관 윤영귀
TEL : 02-2110-7181
FAX : 02-507-6268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lab.go.kr>(최신자료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청년 리더, 세계 무대로 진출 본격 시동

- 글로벌 리더 10만명 양성(해외취업 5만·해외인턴 3만·해외봉사 2만) -

- 오늘 정부는 노동부장관 주재로 경제 5단체 부회장, 한국대학교육협의회·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,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한 산·학·관 협의회를 개최하고,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확정·발표하였다.
- 동 계획에 따르면 2009년~2013년까지 5년간 해외취업 5만명, 해외인턴 3만명, 해외 봉사활동 2만명 달성을 목표로 공공과 민간 부문이 연계한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될 예정이다.
- 우선, 노동부는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구인수요를 적극 발굴하고, 필요한 언어·자격을 교육하는 해외취업연수 인원을 매년 올해(2,500명)의 두 배 이상으로 늘려, 청년들의 취업 무대를 세계시장으로 확대키로 하였다.
- 아울러 건전한 민간 국외 직업알선기관을 집중 육성하여 청년들이 해외 취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다변화하고, 해외인턴·봉사 등 경험자에 대한 집중 사후관리를 통해 취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

- 또한, 다양한 해외인턴·해외 봉사활동 기회가 확대된다.
 - 전문대생 해외인턴은 연 4백명 수준에서 내년에는 두 배 이상 확대되고, 4년제 대학생을 위한 인턴도 내년에 신설된다.(교육과학기술부)
 - 국제 무역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해외인턴 사업도 연간 1천여명 이상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.(지식경제부, 중소기업청)
 - 또한,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재외공관 파견 인턴쉽도 내년 부터 200여명 규모로 확대·시행한다.(외교통상부)
- 한편, 평화 봉사단 활동 이외에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6개월 과정의 청년 해외 봉사단을 신설, 내년부터 매년 2,300~2,500 여명을 파견(교육과학기술부) 할 계획이다.
-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대학과 민간 해외취업알선 및 연수기관 등을 통해서 연수나 훈련을 받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고, 해외인턴 또는 봉사활동 참여자는 왕복 항공료와 현지 체제비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.
- 올해에는 사업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하여 우선 인프라 구축에 역량을 집중키로 하였다.
 - 어학·직무 등 거점대학을 지정하여 기초능력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고, 공공-민간을 통합하는 해외취업 정보망을 구축 하며, 청년고용촉진과 관련된 법률도 정비할 예정이다.
- 한편, 올해 각 부처별로 추진 중인 사업들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된다.
 -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은 주요 국가별 해외취업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해외취업 1,500명, 전문대학생 해외인턴 600명, 평화봉사단 830여명, 청년 인터넷 봉사단 480여명 등을 목표로 사업을 시행해 나간다.

- 오늘 협의회를 주관한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“기업, 대학, 정부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우리 청년들이 세계로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, 정부는 이에 필요한 법·제도를 정비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말하였다.

<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세부 내용>

구분	사업명 (주관 부처·기관)	지원대상·기간	지원 금액(한도)
해외취업	해외취업연수 (노동부, 산업인력공단)	미취업 청년 3~12개월 연수	4백만원
	해외건설인력양성 (국토해양부, 해외건설협회)	미취업 청년 2~6개월 교육	4백만원
해외인턴	전문대학생 해외인턴 (교과부, 전문대학교육협의회)	전문대학생 16주	항공료, 체제비 등
	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(교과부, 대학교육협의회)	4년제 대학생 16주	미정
	국제무역 전문인력 양성 (지식경제부, 중소기업청)	대학생 2~6개월	항공료, 체제비 등
	재외공관 인턴 (외교통상부)	대학(원)생 6개월	미정
	국제 전문여성인턴(여성부) 산림분야 인턴(산림청)	여성 대학생(1년) 산림 전공(2년)	항공료 등 지원 미정
해외 자원봉사	해외봉사단 파견 (외교통상부, KOICA)	대학 졸업생 2년	항공료, 체제비 등
	대학생 국내외봉사활동 (교과부, 대학사회봉사협의회)	대학생 단기(1월), 중기(6월)	항공료, 체제비 등
	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(행안부, 한국정보문화진흥원)	대학생 1~3개월	항공료, 체제비 등
	개도국 과학기술지원단 (교과부,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)	이공계 대학생 1년	체제비, 활동비 등

붙임)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계획

<붙임>

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계획

2008. 4. 29

교육과학기술부 · 행정안전부
외교통상부 · 지식경제부 · 노동부
국토해양부 · 여성부
중소기업청 · 산림청

I. 추진배경

- 최근 국제사회는 글로벌 무한경쟁 속에서 사람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 경제사회로 심화
 - 주요 선진국들은 교육·훈련·고용 등을 포괄한 국가 미래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등 “지식”과 “인적자원개발”에 집중
- 우리 사회가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나,
 - 고학력 청년 실업자가 지속 증가하면서도 산업 수요에 적합한 인력은 오히려 부족한 상황
 - * 청년 실업자 중 대졸이상 비중(%) : 28(97)→36(02)→44.5(07)
 - * 대학교육의 사회요구 부합도 : 40위(IMD, 07)
- 따라서, 우리 청년들의 취업 무대를 국내 노동시장에서 세계 시장으로 확대하고,
 - 다양한 해외 경험을 쌓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 성장을 주도할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는 한편,
 - * '07년 OECD는 한국 청년고용 보고서(Jobs for Youth)에서 대학과 직업세계 연계강화(School to Work)를 위해 인턴십 및 근로 경험을 필수과목화 할 것을 권고
 - 기업이 원하는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여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및 마찰적 실업도 완화

☞ **국가적 차원의 글로벌 청년리더를 10만명 양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해외취업 기회확대**
* 해외취업 5만명, 해외인턴 3만명, 해외 봉사단 2만명

II. 기본 방향

<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기본방향 >

비전 **청년층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**

전략 **△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**
△ 해외 취업을 통한 청년 고용촉진

과제	<해외취업>	<인턴·봉사>	<인프라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우수인재 양성 - 국가별·직종별 맞춤형 연수 강화 - 민간단체 지원 및 우수기관 인증 ◆ 수요처 발굴 -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강화 - 해외지사, 협력업체 등을 통한 수요 발굴 강화 ◆ 사전·사후관리, 무등록 업체단속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우수인재 양성 - 대상별(전문대·일반대·재외공관) 프로그램 특화 ◆ 수요처 발굴 - 국내 현지법인 등 네트워크 강화 ◆ 사후관리 등 - 학점·필수과목 인정 - 해외취업 등 글로벌 사업간 연계강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글로벌 리더 추진 법적근거 명확화(법 개정) ◆ 글로벌 리더 양성 협의회 운영 ◆ 산·학·관 공동정보 네트워크 구축 ◆ 비자 등 외교적 문제 해결

◆ 분야별 정책목표, 대상 및 계획

구분	정책목표	사업대상	연차별 계획	
			'08	'09~'13
해외취업	· 해외취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 고용촉진	· 학교 졸업(예정)자, 청년실업자 및 취업 애로층	· 통합 정보망 구축, 거점대학 육성 등 인프라 확충	· 7,400명(09) · 최종 5만명 달성 추진
해외인턴	· 국제적 경험축적 등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	· 대학 재학생 (졸업 예정자)	· 인프라 구축 · 산,학,관 연계 방안 강구	· 5,400명(09) · 최종 3만명 달성 추진
해외 자원봉사	· 개도국 자원봉사 등을 통한 국제적 감각이 있는 인재 육성	· 봉사, 희생정신을 갖춘 인재 · 의료, 컴퓨터 등 기술인력	· KOICA 중심 개선책 마련 · 단,중기 과정 신설 추진	· 3,400명(09) · 최종 2만명 달성 추진

III. 세부 추진계획

1. 해외취업 : “취업 무대를 세계 시장으로 확대”

◆ 국내 취업애로 청년 등 대상 맞춤형 해외연수 확대와 수요처 확대를 통한 취업국가·직종 다변화 추진

사업 명 (주관 부처·기관)	목 표 인 원
해외취업연수 (노동부, 산업인력공단)	• 매년 5천명~1만명 수준 연수 투입 (이 중 66% 취업 목표 추진)
해외건설인력양성 (국토해양부, 해외건설협회)	• 매년 700명 수준 양성 (이 중 30% 취업 목표 추진)

가. 해외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

<1> 해외취업연수 확대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

- 연수인원은 매년 '07년 두 배 이상 확대(2,500여명 → 5천명 이상)
 - IT·비즈니스·자동차설계 등 직종별 연수과정 대폭 확대('08.9월, 12월 연수기관 수요조사 결과 기반)
 - * 해외취업연수 현황 :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3~10개월간 어학·직무 국내연수(1인당 4백만원 지원)를 거쳐 해외취업 유도
 -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재학 중 연수대상 자격 요건 완화(4학년 2학기→4학년 1학기, '09.1월)
 - 주요 국가별 해외 인력 수요와 해외 구인업체가 요구하는 직무수준, 구직자 능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연수 개설 확대
 - * 한일 정상회담('08.4) 결과를 감안, 현재 연수에 의한 일본 취업자 6백명 수준을 '09년부터 대폭 확대 추진

- * 중국(비즈니스), 일본(IT), 호주·캐나다(건설), 중동(항공) 등
- * '07년 캐나다(중장비 19명), 미국(간호사 20명) → '08년 중국(항공 승무원 206명), 미국(간호사 29명)

□ '09년부터 매년 해외건설 전문인력 7백명 연수 추진

- 건설 분야 대학 전공자 대상으로 연수를 거쳐 해외 진출 건설업체에 취업으로 연계
 - * 공정·사업금융·조달계약 등 국내교육과 해외플랜트 등 현장연수 병행
 - * 현재 약 1,000여명 기술 및 관리인력 부족, 2010년까지 약 6,250명 해외 건설인력 부족 예상(해외건설협회)

<2> 글로벌 청년인재 양성 거점 대학 육성

- 전국 권역별로 경쟁력이 있는 대학을 선정, '글로벌 리더 양성 기관'으로 지정하고 우수 인재 양성 추진
 - 각 대학은 학년별 프로그램 마련, 수준별 영어학습 지원체제 구축, 해외자격시험 준비과정 등 운영
 - 권역별로 선정된 대학은 인근 지역사회 학생을 포괄하여 대상자 선발·운영

나. 해외 구인 수요처 발굴 강화

<1>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확충

- 해외 수요 발굴 강화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
 - 재외공관·KOTRA·한인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연계, 취업 설명회·현지 홍보 등을 통해 구인업체 적극 발굴
 - * KOTRA, 재외 교포단체 등 유관기관에 '(명예) 취업지원 담당자'를 두고, 업체 발굴 등 사업 추진

- 한상 네트워크, 국제 인턴기구(IAESTE) 등과 연계하여 공공-민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, 구인수요 발굴에 활용

<2> 장기적·안정적 해외수요 확보를 위한 MOU 체결

□ 주요 해외취업 수요 국가 기관과 협약체결 추진

- 해외 취업연수·인턴 등 인력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파견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기술인력 협력 MOU 및 상호 자격인정 협정 추진

* '08년 중 캐나다(알버타 주정부), 호주(퀸즈랜드 주정부)와 협정체결 추진(한국산업인력공단)

* 호주, 캐나다(건설분야) 등 자격협정 확대 추진

□ 주요 국가 직종별 협회·단체와 연계 강화

- IT 포럼(일본) 참여기관 등과 월드잡간 온라인 연계
- 관련단체의 우리나라 연수 훈련기관 참관, 간담회 등 실시(연 2회)

다. 우수 민간기관 육성 및 활용

□ 전문적 민간 해외취업 사업자 운영지원

- 민간 업체가 해외취업 프로그램(해외 구인처 발굴, 취업 희망자 연수 등)을 마련하여 응모시 경쟁을 통해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등 우수 민간기관 육성 추진

- 대학·지자체 등 국내 인턴사업 수행 단체가 해외취업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, 구인정보 제공 등 지원 확대

* 사례) 부산시는 지역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인턴십 사업 지원('07년 16개 대학 580명 18억원 지원, 취업률 61%)

□ 민간 유료 직업소개 요금 규제 완화

- 국외 유료 직업소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개요금 자율화 추진('09.1월)

* 현재는 월 기본금 600\$까지는 220\$ 한도, 600\$ 초과시 초과분의 33% 범위내 소개요금 징수 가능

□ 모범사례(Best Practice) 발굴·확산을 위해 '우수기관 인증제' 및 우대조치 실시('08년 최초운영)

* 노동부 사업 참여시 우대·인증마크 부여·사업체 홍보 등

라. 해외연수 참가자 사전·사후관리 강화 등

<1> 참여자 사전·사후관리 강화

□ 해외 연수에 참여자가 조기에 현지 국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현지적응 서비스 제공

- 현지 도착부터 주거생활·교통편의 관련 고충상담 등 정보와 조언 제공(재외공관·KOTRA 활용)
- 해외취업 확정자에 대한 출국전 적응교육 프로그램 운영
- 호주, 캐나다 등 주요 취업국가에 우선적으로 '현지 주재원' 지정

□ 해외연수·해외취업 참여자를 DB화하고, 국내에서 이들을 적극 활용

<2> 무등록 업체 단속강화를 통한 선의 피해자 방지

□ 불법 해외취업 업체를 통한 피해사례 방지를 위해 불시 점검 강화(연 2회 이상)

2. 해외인턴 : “글로벌 직장체험으로 국제적 마인드 제고”

◆ 대학 재학생 중심 운영, 학점인정 등 사후관리 및 해외취업과 연계 강화 추진

사업 명 (주관 부처·기관)		목 표 인 원
대학생 해외인턴 (교과부)	전문대학생 해외인턴 (전문대학교육협의회)	• 현행 4백명 → 8백~1천명 으로 확대
	4년제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(대학교육협의회)	• 3백~5백명 수준 실시
국제무역 전문인력 양성 (지식경제부, 중소기업청)		• 현행 7백명 → 1천명 이상 확대 실시
재외공관 인턴 (외교통상부)		• 200명 수준 확대 실시
국제 전문여성인턴 (여성부)		• 매년 15명 실시
산림분야 인턴 (산림청)		• 매년 45명 실시

* Working Holiday 비자를 통해 매년 4만명 이상 인턴 또는 취업 유도

가. 각 부처별 특성에 맞는 인턴 사업 운영

□ 대학생 해외 인턴 확대 시행

○(전문대생) 연간 3~4백명 수준에서 '09년부터 단계적으로 8백~1천명 수준 확대

* 16주(4주 사전교육, 12주 현지인턴) 운영, 미국·일본·중국 등 취업연계 가능국가 파견

○(4년제) 관련 기관·대학간 협의를 통해 사업 구체(안)을 마련하고 사업을 확대('09년 300명 → '11년 500명)

- 만족도 지표 개발, 연수업체 발굴 지원을 통해 대학의 인턴십 운영 부담 경감

○ 선발시 소외계층 배려, 수료자 학점 인정(20학점) 등 현행 우수 운영사례는 그대로 계승

□ 국제무역 전문인력 양성 인턴

○ 현재 '국제무역 전문가 양성사업(지경부, 연 750명)'은 내실화하고, 이를 단기 해외인턴과정(중기청)과 연계

* 해외 현지법인·다국적 기업 등을 통해 현지시장 및 유통 경로 분석, 현지 비즈니스 노하우 등 습득

□ 재외공관 해외인턴 파견 확대

- 약 70여개를 대상으로 2~3명 파견(6개월 단위)

* '07.3월부터 외교통상부는 외국어대와 공동으로 재외공관 인턴쉽 시범운영 중('07년 16명, '08년 36명 파견)

□ 여성의 국제무대진출 활성화를 위한 “국제 전문여성 인턴(여성부)”, 해외 산림자원 개발 전문가 육성(산림청)

□ 각 부처 사업은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차별화 등 지속 추진

나. 대학의 자율적 국제화 노력 유도

□ 대학의 국제화 성과와 재정지원의 연계

- 대학의 교육 여건·성과를 반영한 포물러 설계* 시 국제화 지표(예 : 외국인 교원 확보율, 영어 강좌 비율, 해외 대학 및 산업체 교류실적 등)를 신설

* 대학 운영의 자율성 제고와 성과 극대화를 위해 사전에 제시된 공식에 의해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하고, 대학은 자율적으로 재원을 사용

□ 대학의 국제화 추진 현황 공개

- 대학의 국제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정보공시 항목을 발굴, 대학의 자율적 국제화 노력을 촉진

* (대학정보 공시제) 대학의 주요 정보 공개로 수요자 선택권을 보장하고, 대학간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가속화('08.10 시행)

□ 해외 인턴쉽 운영대학 평가 및 컨설팅 등 지원확대

다. 해외 현지법인 등 네트워크를 통한 수요처 발굴 강화

□ 국내 대기업 등을 통한 인턴업체 적극 발굴

- 국내 기업 해외지사 및 협력업체, 현지진출기업 등을 통한 인턴·연수 적극 활용 및 수요처 발굴

* 미국 현대자동차 건설현장, 멕시코 LG, 삼성전자 공장 등 현지진출 대기업의 건설현장 또는 협력업체 등 활용

- 해외 주요 취업 사이트 및 언론 등을 통한 홍보 실시

□ 민간기업 우수사례(Best Practice) 발굴 · 확산

- 해외인턴 · 연수 등 기업체의 우수 운영사례* 적극 발굴, 기업체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

* LG 글로벌 챌린지(국내 대학생 등), SK 글로벌 인턴십(해외 학생)

라. 학점인정 등 인턴 종료자 사후관리 강화

□ 해외인턴 활성화를 위한 학점인정 확대

- 대학생들의 인턴 참여를 독려하고 경험자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학점인정 활성화

* '07년 65개 대학에서 학점과 연계(3,692명 참여)

* 사례 : 서강대 공과대학(독일 BM사, 15학점), 이화여대 국제대학원(국제기구, 9학점)

□ 해외인턴 및 해외취업간 연계강화

- 해외인턴 경험자 정보는 DB화하여 월드잡 사이트에 등재하고, 해외취업 알선에 적극 활용

* '08.12월까지 월드잡 개편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해외인턴 · 해외봉사활동 운영기관 데이터 통합 운영

마. Working Holiday 비자 확충을 통한 해외인턴 활성화

□ 기존 국가 쿼터 및 협정체결 국가 확대

- 현재 일본('08년 3,600명), 캐나다('08 2,010명), 뉴질랜드('08 1,500명) 등 비자 체결국가와 쿼터 확대 추진

- 연차적으로 신규 국가와 협정체결 확대 추진

3. 해외자원봉사 : “글로벌 감각을 갖춘 국가 인재로 육성”

◆ 자원봉사 경험 기회 확대, 중단기·장기 등 프로그램 다양화 및 민간 기업과 연계 강화 추진

사업 명 (주관 부처·기관)	목 표 인 원
해외봉사단 파견 (외교통상부, KOICA)	· 매년 1천명 수준 파견
대학생 국내외봉사활동 (교과부, 대학사회봉사협의회)	· 매년 2,300명~2,500명 수준 파견
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(행정안전부, 한국정보문화진흥원)	· 매년 400여명 파견
개도국과학기술지원단 (교과부,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)	· 매년 30여명 파견

가. 대상별로 특화된 중단기 프로그램 운영

□ 대학 졸업자 중심 장기 봉사단(Peace-corps) 파견

- 2년 과정으로 5년간 5천명의 정예 봉사단을 개도국에 파견, 세계평화 리더 그룹으로 육성(1인당 연 3천만원 지원)
 - * 매년 의사, 이공계생 약 120명 국제협력요원(병역대체, 30개월) 파견
- 치안사정이 양호한 26개 국가와 신규 파견협정 체결추진
 - * 부탄, 카메룬·가봉 등 아프리카 14개 국가, 볼리비아·콜롬비아 등 중남미 5개 국가, 알바니아·그루지아 등 동구 6개 국가
- 1년 과정 대학생 해외봉사단(연 100명), NGO와 연계한 해외봉사단(연 100명) 파견 병행

□ 재학생 중심 단기·중기 봉사단(Youth-corps) 운영

- 6월 중기 과정을 신설하는 등, 재학생 중심의 중·단기 해외 봉사단 파견 규모를 확대('08년 2,200명 → '12년 2,500명)
- 아프리카·중남미 등 신흥 에너지 부국으로 파견국을 다양화하고, 봉사활동 및 문화체험 지원(한국어 교육, 의료 등)

- * 단기 : 국내교육 1주+해외봉사 3주 (교육·의료 봉사 및 문화체험)
- * 중기 : 사전·현지교육(4주)+해외봉사 20주 (ODA 참여 및 문화교류)

□ 이공계 인력 중심 기술 봉사단(Techno-corps) 파견

- 국제정보격차해소 지원을 위하여 약 40여 개도국에 매년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400여명 파견
 - * '01~'07년까지 61개 국가에 1,973명 파견
 - * 1~3개월 과정으로 정보화 교육(컴퓨터 일반·인터넷 활용·홈페이지 제작), IT Korea 홍보 등 실시
- 개도국 과학기술력 제고와 국내 우수 이공계 인력의 진로 다양화를 위한 과학기술지원단 파견
 - * '06년 6개국 17명, '07년 8개국 27명 파견
 - * 국내교육(어학 및 기술교육 등) 6주 이후, 해외 현지 대학 및 연구소 등에서 1년여 간 활동(강의 및 기술지도 등)

나. 공공-민간 연계를 통한 봉사활동 내실화

□ 민간기업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파트너십 구축

- 민간 기업이 추진 중인 글로벌 차원의 사회공헌 현장에 해외봉사단을 파견하는 등 기업-정부간 협력 강화
 - * 사례 : 현대 중공업은 중국 농촌 및 빈곤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장시성과 광시성에 “희망 초등학교” 건립 중('08.9월 개교) → 초등교육·컴퓨터·한국어교육 등 청년 봉사단 연계 필요

□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와 협력 채널 구축

- 향후 고용허가제 MOU를 체결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해외 봉사단 파견과 연계되도록 추진
 - * 현재 MOU 체결국가 14개 중 13개 국가에 해외 봉사단 파견

다. 해외인턴·해외취업과 연계 등 사후관리 체계 구축

□ 봉사활동 경험자에 대한 해외취업 알선 강화

- 경험자를 DB화하고 희망자에게는 해외취업 알선

* 월드잡 사이트에 해외취업·인턴 등 정보와 통합관리

□ 해외인턴·해외 취업연수와 봉사활동간 연계 강화

- 해외인턴 및 해외 취업연수 이수자 중 희망자는 해외 봉사단 선정시 우대

- 한·일 대학생 해외 교류 등을 통해 국제화 경험을 습득한 우수학생의 해외 봉사활동 참여 유도

* 한·일 정상회담('08.4)을 통해 '08년부터 200명 규모 한·일 대학생 교류 사업을 신설하기로 합의

□ 기업은 신규 채용시 해외인턴·해외봉사단 참여자 우대('08.4.2, 「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산·학·관 협약식」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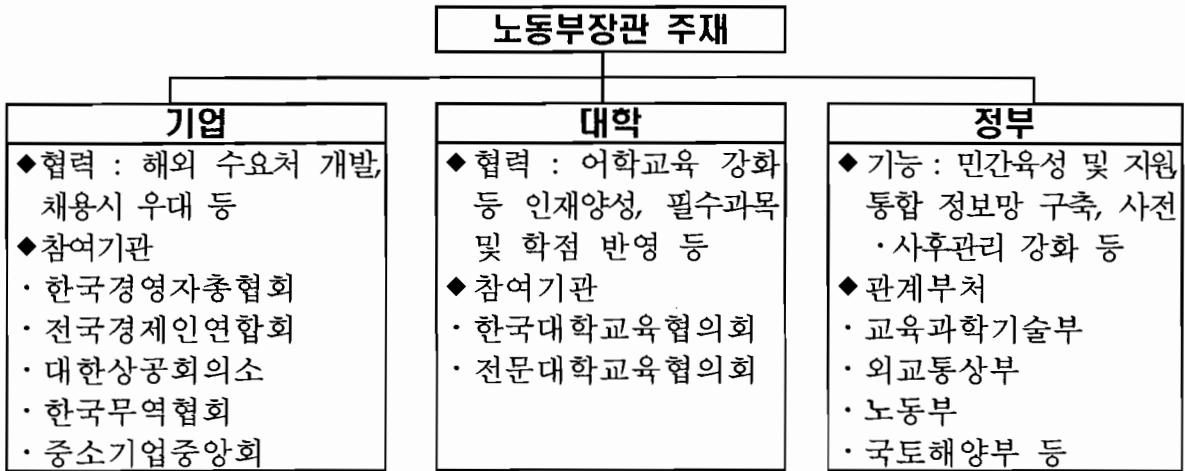
4. 인프라 : “글로벌 인재 양성 및 효과적 활용체계 구축”

◆ 글로벌 사업 추진 산·학·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, 통합 정보망 운영 및 법적근거 명확화 등 추진

□ “글로벌 리더 양성 산·학·관 협의회” 운영

- 구성 : 산·학·관 부단체장, 정부부처는 차관(의장 : 노동부장관)
- 기능 : 종합계획 수립, 사후 추진방안 지속관리
 - * 종합계획(안) 마련 등 실무 작업을 위해 실무 위원회 구성·운영 (반장 :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관)

< 글로벌 리더 양성 산·학·관 협의회 >



□ 주기적인 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 거양

- 산·학·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주기적(분기 1회)으로 개최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 확립
 - * '09년 성과평가 후 사업간 목표량 재조정 필요성 등 점검

□ 정부-기업-대학-민간 공동 정보 네트워크 구축·운영

-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구축된 해외취업 전산망(월드잡)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글로벌 리더 정보 통합 정보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('09.2월 완료)
 - * 재외공관·KOTRA·재외동포재단 등 홈페이지와 월드잡 사이트를 연계하여 다양한 해외취업정보 제공

□ 해외취업 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'글로벌 인재 양성 본부'를 설치, 종합적·입체적으로 사업 추진

- * 해외취업의 효율적 추진 및 해외인턴·봉사 등 각 사업간 정보제공, 모니터링, 통계관리 등 종합지원시스템 구축·운영

□ 추진체계를 입법적으로 구체화

- 현행 「청년실업해소특별법」를 “(가칭)청년 고용촉진 특별법”으로 확대 개편하고,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산·학·관 책무 및 협력체계 구체화('09년 시행)

IV. 추진 일정

<'08년도>

- “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종합계획” 및 각 부처·기관별 세부적인 실천 계획(Action Plan) 시행
 - 실천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고 진행상황·효과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 확인 병행
- 각 부처별로 기존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
 - * 해외취업연수 2,500명, 전문대생 인턴 600명, 피스코 830명, 유스코 2,200명, 청년 인터넷 봉사단 480명, 해외취업 알선 6,000명
-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(노동부)
 - 산·학·관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('08.4월~), 공공-민간 통합 정보망 구축('08.6월~'09.2월)
 - 해외 취업 연수 확대 시행('08.6월), 관련 법률 개정('08.8월) 등

<'09~'13년>

- 산·학·관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목표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 시행
 - * 과제들의 실천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대책 강구